

#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의 영문 소설 외연 확장에 대한 기여에 관한 연구: “아프리카” 영문 소설에서의 이보 언어 및 속담 사용을 중심으로

Chinua Achebe's Contributions to the Expansion of the English Language: A Look at "African" English Literature Exploring Ibo Language and Proverbs

이영은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Young-Eun Lee(kspnyoung@gmail.com)

## 요약

아프리카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 치누아 아체베는 아프리카 민속문학의 대표작을 세웠다는 데에서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영문 소설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의 1편의 소설을 분석하여 그가 영어로 소설을 쓰면서도 나이지리아의 토착어인 이보어의 속담, 문구 등을 교차 사용하여 기존 영문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정서를 담은 등으로 영문 소설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영어 | 언어 | 이보 | 속담 | 문화 |

## Abstract

One of Africa's most accomplished writer, Chinua Achebe is not only known to have contributed to writing a renowned folk literature but to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the English language.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explore Achebe's most widely read novel "Things Fall Apart" and his 1 other novel and analyze how the incorporation and purposeful use of Ibo words, proverbs and phrases contribute to not only conveying the rich African experience but expanding the English language.

■ keyword : | English | Language | Ibo | Proverbs | Culture |

## 1. 들어가며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아프리카 문학의 기반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영문 소설에 아프리카적 정서를 도입하여 영문학의 범위를 넓힌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아프리카 전

체에 문학적 기준을 세운 소설로, 지금도 아프리카 문학을 넘어서 세계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2년 짐바브웨 국제도서전에서 발표된 '20세기 아프리카의 100대 도서(Africa's 100 Best Books of the Twentieth Century)'에서 상위 1호권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을 만큼 이 소설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1].

접수일자 : 2017년 10월 20일  
수정일자 : 2017년 11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11일  
교신저자 : 이영은, e-mail : kspnyoung@gmail.com

한 때 나이지리아인인 아체베가 영어로 글을 쓴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의 모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으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식민지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이 그 비판의 이유였다.

그러나 아체베는 영어만큼 과급력과 전달력을 가지는 언어는 또 없다고 보았고,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표현하고 아프리카의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어가 최상이라고 믿었다. 아체베는 영어라는 서구의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지배자인 그가 먼저 ‘혼성화’된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하는 종속관계를 극복하고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양가적’ 태도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2]. 그는 지배자의 언어인 영어로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아프리카 전통적 가치를 전파하기 원했다.

1930년 오기디(Ogidi)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이보1인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서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궁지가 뚜렷했던 그는 『미스터 존슨』(Mister Johnson, 1920) 등과 같은 작품을 접하고 해당 작품을 쓴 작가의 인종적 편견을 발견했다. 그 후 그는 유럽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묘사를 수정하고 언어적 이해력의 한계와 선입견을 깨고자 하는 목적 하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등과 같은 소설을 쓰게 되었다[4].

이런 관점으로 아체베의 작품을 검토해 보면 아체베의 경우 피지배인의 종속적 감정을 가지고 영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영문학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는 영어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아프리카적 경험과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였는데, 나이지리아 부족어<sup>2</sup>인 이보(Ibo 혹은 Igbo)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정서를 담고자 했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가지는 정서를 보존하고 전파하려 애썼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체베는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가진 소설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체베의 대표적인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Things Fall Apart)와 『더 이상 평안은 없다』(No Longer at Ease)에서 그가 이보어를 사용한 방식에 대해 검토하여 아체베가 영문 소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화 한 점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치누아 아체베의 업적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아체베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두경[4], 이선현[5], 정태상[6], 권명식[7]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특히 그의 작품을 대부분 정치적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탈식민지적 문학’으로 해석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순수하게 문학사 혹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아체베의 기억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단지 박정경[8][9] 정도가 아체베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속담, 민담, 민요 등을 분석하여 그를 아프리카 고유의 역사와 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박정경[8][9]의 평가와 같이 아체베의 소설이 아프리카 민속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으나, 그의 소설은 단지 아프리카 본래의 민속 문학 발전에 대해서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영문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영문학의 범위와 그 외연을 확장할 점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아체베는 애초부터 그의 언어적 선택이 영문학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생전 미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분명히 한 바 있다.

1) 이보(Ibo 혹은 Igbo)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첫번째는 나이지리아의 세번째 안에 드는 가장 큰인종집단이고 두번째로는 이들이 쓰는 언어를 뜻한다. 이보어는 수단 언어학 집단 쿠와(Kwa)분열(Sudanic linguistic group of Kwa division)에 속한다. 언어의 특징은 음조, 단음절 뿌리 단어 그리고 inflexional 엔딩의 부제이다. 이보 부족은 나이지리아 남동쪽에 거주하고,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부족 하우사(Hausa)와 요루바(Yoruba) 부족과는 달리 나이지리아에서만 거주하는 고유한 토착민이다. 이보 어른들은 그들의 부족은 어디부터 이민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한다[3].

2) 나이지리아는 약 250개의 부족어가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언어로는 하우사(hausa), 요루바(yoruba), 이보가 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나라에 영국 식민지 현실을 쓸 마음을 가졌을 때, 난 이 두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마음을 가졌다. 그 생각으로 이 책을 구현했다. 나는 애초부터 알았다. 이 두 개의 언어의 만남은 나의 문학 적 정체성을 만들 것이라고.”[10]

이런 작가의 의도를 인지하기라도 하듯, 최근 학계에서는 영문학 그 자체에 기여한 아체베의 공헌을 이전과는 달리 평가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는데 2015년 모드(Mode)와 사니(Sani)는 그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아체베가 표준화된 영어와 나이지리안 영어를 교차하며 영문학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한다[11]. 단라리[12] 역시 21세기 나이지리아 영어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아체베는 영어를 확장시킨 장본인이라고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체베가 특히 이보어를 적절히 소설 속에 녹여 사용하는 점을 통해 영문소설의 범주를 확장시켰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대표적인 소설들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더 이상 평안은 없다』을 분석하여 그가 영문소설의 외연확장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자 한다.

## 2) 영문학에 관한 학술적 개념 정의

한편 본 논문에서는 아체베가 영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킨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논증하고자 하는바, 이를 위해 영문학의 범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피는 것은 논의전개상 꼭 필요한 단계라 할 것이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영문학은 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제도의 주민들이 영어로 저술한 작품들만을 뜻한다. 그렇기에 그 범위가 매우 편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개념은 근대 민족 국가 건립되면서 형성되었는데 영국인 공동체가 그들의 이념을 대표할 만한 문학적 양식이 필요함에 따라 발전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초기의 영문학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이념을 구현하고 부르주아 가치를 보편화하는 문화형식으로서, 새로운 보편질서를 부르주아 계층 중심으로 실현하려는 제국주의적 욕망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적 기능이 있었던 것이

다. 이 때문에 근대 문학으로서는 영문학이 근대 민족 국가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하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다는 분석이 있다[13].

그러나 영문학의 범위가 이토록 편협하게 한정된다면, 사실 아체베의 각종 영문소설도 영문학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영문학은 단지 영국인들의 문학만이 아니며 영어로 된 문학 그 전체를 일컫는 것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점점 그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체베의 경우 영어를 활용하여 나이지리아의 정신을 전달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영어는 일종의 도구로 활용된바, 전통적인 영문학의 범주에서 본다면 오히려 영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상충되는 측면으로 서의의미가 있었으므로 영문학으로 편입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체베는 이보사회의 전통가치와 경험을 서구사회에 영어로 전달하면서, 영미권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영어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을 이보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결국 영문학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 그 표현의 가능성을 넓혔으므로 이는 아체베의 소설을 영문학의 한 범주로 보고, 그가 영문학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체베의 소설이 ‘영어’로 쓰였고 토속어를 결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문학 전통 속에 무조건 편입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텍스트 속에는 영국적인 가치기준으로는 결코 재단해낼 수 없는 아체베만의 고유한 경험, 즉 이보 사회의 전통 가치와 결합된 경험이 농축되어 있으며, 아체베는 영미 문화권 사람들이 기존에는 알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바를 소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영문학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식민지 본국의 ‘영어’가 있으면, 호주의 ‘영어’도 있고, 캐나다의 ‘영어’도 있고, 또 나이지리아의 ‘영어’도 있다.” 이석호[14] 따라서 영문학은 단순히 ‘영국인들만

의 문학'이 아니라 '영어로 된 문학 그 전체'를 일컫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영미권 독자들에게 소통의 가능성을 넓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영문학의 범주를 넓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 3. 작품 요약

아체베의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의 플롯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오콩코(Okonkwo)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깊은 반감을 품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여유가 있었으며, 음악과 대화를 즐겼지만 생전에 아무런 재산도 일구지 못했다. 반면에 오콩코는 남성 우월적인 윤리를 존중하고 강인하고 거친 성격을 드러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권위를 획득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다. 소설의 전개부에서, 오콩코는 이케메푸나(Ikemefuna)라는 소년을 살해한다. 그는 사실상 자신의 입양아나 다름없었던 소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장례식에서 오발 사고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오콩코와 그의 가족은 7년 동안 지역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지역 사회에 돌아온 후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고향의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자신의 성격에 걸맞게 백인에 폭력적으로 대항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그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오콩코는 결국 백인 한 명을 살해하게 되고, 절망감에 빠진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살한다. 이같은 자살은 오콩코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내에서 혐오시되는 행위였기에 그는 완전한 치욕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중요했던 아버지와 유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여기에 그의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체베의 또 다른 소설 『더 이상 평안은 없다』는 오콩코의 손자인 오비(Obi)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소설은 오비가 뇌물 수수 혐의로 영국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비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클라라(Clara)라는 여성과 오비가 연인 관계라는 점

으로 오비는 클라라와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오비의 가족은 클라라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그들의 결혼을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클라라는 약혼을 파기하고, 오비가 낙태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사건에 이어 동생들의 학비와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대야 했던 오비는 빚을 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뇌물을 받다가 뇌물수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다.

### 4. 이보어의 사용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더 이상 평안은 없다』속 주인공들의 고향인 우무오피아(Umuofia) 사회에서 이보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보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관습들과 전통을 잘 이해한다는 능력의 표징으로, 부족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일수록 부족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보어 구사의 정도가 존경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설정을 통해 작가는 영문 소설 속에서 이보어를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합시켰고, 영문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고유의 정서와 경험을 드러내고자 했다.

#### 4.1 악기이름 사용사례

단어	뜻	의미
Musical Instrument 악기		
ekwe (drum)	에크웨(북, 드럼)	서양 타악기의 하나이다.
ogene (gong)	공(징)	민속음악에 쓰는 타악기이다.

아체베는 이보부족의 생활상, 문화 등을 묘사하기 위해 유독 이보부족이 사용하는 악기를 이보어 그대로 소개하였다. 작품 서두에서 오콩코의 아버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예로 들어 보자.

“그의 정신의 귀는 ekwe와 udu와 ogene의 미묘한 리듬, 피를 들끓게 하는 그 리듬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플루트가 그 멜로디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화려한 색채의 호소력 있는 음조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들을 수 있었다.”

“He could hear in his mind’s ear the blood-stirring and intricate rhythms of the ekwe and the udu and the ogene, and he could hear his own flute weaving in and out of them, decorating them with a colorful and plaintive tune” (Things 2).

이 구절에서는 이들 이보 단어의 악기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보충 설명이 없다. 글의 맥락을 통해 이 단어들은 아프리카의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맥락을 통해 ekwe가 플루트와 동일한 범주의 악기이고, ekwe의 소리가 어떻게 간에 플루트 소리와 잘 어울릴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 4.2 이보어에서 어른의 사용례

단어	뜻	의미
People 사람들		
ndichie (elders)	손윗사람 (웃어른)	나이나 지위, 신분이 자기보다 높은 어른
nnaayi (our father)	우리아버지 (하느님)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가톨릭에서 신봉하는 유일신
imuada (relations)	친척	친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egwugwu (ancestral spirits)	조상의 영 (조상신)	가신제의 대상이자 조상들의 혼령이다.

한편 우모피아 사회에서 은디치(Ndichie) 어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모피아 사회는 남성 민주주의로 구성되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 결정은 ndichie들이 내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모피아 여자가 Mbaino라는 이웃 마을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자 ndichie들은 다함께 공개된 장소에 모여 그 마을과 전쟁을 치를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전쟁 대신 Mbaino 마을의 한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데려오고 그들을 어떤 가족으로 넘겨질 것까지 결정을 내린다.

만약 아체베가 ndichie를 그 뜻에 상응하는 영어표현 elder로 대체했다면, 분명 ndichie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어른 역할의 중요성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영어에서의 연장자는 말 그대로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는 연장자의 뜻을 담고 있지 우모피아 사회에서의 어른들이 마을의 모든 결정과 방향을 잡고 나아가 개인들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뜻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한편 소설 속에서 조상의 영혼은 이보어 Egwugwu로 표현되었다. Egwugwu는 조상의 신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우모피아 연장자들을 나타낸다. Egwugwu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재판관으로 봉사하고 불만을 듣고 처벌을 내리고 갈등을 해결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Egwugwu가 지역 사회에서 권력을 잃어 백인 법원으로 대체되면 일족의 문화와 독립은 상실된다고 믿는다.

#### 4.3 아프리카 토속신앙을 드러내는 단어 ‘치(chi)’의 사용례

이보어 치(chi)는 영어에서 개인의 신(personal God), 운명(destiny or fate)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소설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다. 대신 작가는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독자가 스스로 그 개념을 유추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나이지리아(Nigeria)의 경험을 드러내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때, 이에 해당하는 이보어를 영어 텍스트에 도입하여 영어의 범주를 확장시킨다. 다음의 용례를 살펴보자.

“친구여, 자네의 치는 매우 깨어있구려.”

“Your chi is very much awake, my friend.”[13]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이나 chi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He saw clearly in it the finger of his personal god or chi”[15]

“그의 인생은 비물리적 존재의 힘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고 chi의 힘을 잃어버린 자를 나타낸다. 오펜코는 그 복잡한 지역사회, 모든 객체의 연관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자만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자아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이다.”

“His life represents one who has arrogated to himself the power of the non-physical being and who has forgotten the power of chi. Okonkwo excised himself from that complex community, from the interconnection of things, to pursue his aggrandized individual ego.”[15]

소설 속 오콩코의 몰락은 결국 그가 자신의 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는 영어의 기존 표현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치는 한 인간의 운명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보다 초월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에게 존재하는 영성, 각 개인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수호신 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 부족의 부족신앙에 따르면 자신의 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는데, 인간은 치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나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의 치 혹은 신이 그를 도왔다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보 속담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의 치 또한 “예.”라고 말한다고 했다. 오콩코는 “예.”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고, 그래서 그의 치도 동의했다.”

“At the most one could say that his chi or personal god was good. But the Ibo people have a proverb that when a man says yes his chi says yes also. Okonkwo said yes very strongly: so his chi agreed.”[15]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더 이상 평안은 없다』속 두 주인공들은 치를 무시하다가 불행에 처하고 만다. 먼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 신들을 숭배해야하는 평화의 한주(Week of Peace)에 오콩코는 자신이 세번째 부인이 자신의 식사를 차리지 않고 친구 집에 머리를 따러 갔다고 듣자, 돌아온 그녀를 사정없이 때린다. 그의 행동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아

무리 그가 영웅이지만 치 앞에는 그는 그저 작은 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부족의 신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그의 적들은 그가 행운에 너무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그를 ‘실컷 먹고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치(chi)에 대들었던 조그마한 새 엔자(nza)’일 뿐이라고 불렀다”

“And so people said that he had no respect for the gods of the clan. His enemies said that his good fortune had gone to his head. They called him the little bird nza who so far forgot himself after a heavy meal that he challenged his chi.”[15]

오콩코는 자신의 치를 믿었으나 그의 자만심으로 인해 치에 도전했고 이같은 도전의 결과로 마침내 몰락하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의 키우던 아들같은 이케메푸나를 죽이는 데에 동참하였으며, 평화의 한주에 자신의 아내를 때리고, 장례식에서 사고로 같은 집단(clan) 사람을 총으로 쏘서 부족으로부터 7년간 추방을 당한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치에 굴복하게 된다.

“그는 이 일에 자신의 신인 치의 손길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불운과 유배 그리고 이제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He saw clearly in it the finger of his personal god or chi. For how else could he explain his great misfortune and exile and now his despicable son’s behavior?”[15]

아체베는 치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속담을 『더 이상 평안은 없다』에서도 사용한다. 오비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우무오피아 사회에서는 영웅이지만 자신의 치를 모르고 전통법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저 어리석은 작은 새에 불과할 뿐이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가 다시 사용된다.

“그는 ‘실컷 먹고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치(chi)를 일 대 일의 격투로 대들었던 조그마한 새 엔자(nza)’”같다라고 한 이보 사람이 말했다.

“He is like the little bird nza who after a big meal so far forgot himself as to challenge his chi to single combat,” said another Ibo.[16]

작가는 두 소설 모두에서 치라는 개념을 같은 속담을 통해 표현했고, 이를 통해 독자는 치가 아프리카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아체베가 단순히 치를 운명(fate)이나 신(personal God)으로 표현했다면, 오콩코의 비극에 담겨 있는 의미는 희석되었을 것이다. 이보어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효과로서,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영문학의 범주를 확장한 것이다.

#### 4.2 아프리카 사회의 계층과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단어로서의 ‘오수(osu)’의 사용

『더 이상 평안은 없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보어로서, 소설의 플롯과 오비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는 ‘오수’이다. ‘오수’는 오비의 애인 클라라가 고백을 할 때 처음 등장한다.

“나는 오수(osu)이다.”

“I am an osu.”[16]

사회학자 빅터 다이크(Victor Dike)는 ‘오수(osu)’란 아프리카 카스트 제도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카스트라고 정의한다[16]. 오수란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에서 오비가 클라라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된다. 오비는 처음에는 클라라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여전히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 특히 오비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클라라는 오비가 자신과 결혼했을 경우 겪게 될 피해 약혼을 파기한다.

작품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수’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프리카 카스트제도 속에서의 클라라의 위치 그 이상을 나타낸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의 생활방식이자 일종의

의 사고방식이다. 클라라가 고백하기 전만 해도 오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서구식 문화 기준에 따라 결혼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클라라의 고백 이후에도 오비는 클라라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서구식 교육을 받은 오비는 자신의 부족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예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는 책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야. osu가 무엇인지 알기나 해? 어떻게 알겠어?”

“You know book, but this is no matter for book. Do you know what an osu is? But how can you know?”[16]

위에서 보듯 이보 부족의 전통적인 개념은 독자에게 낯선 것만큼이나 오비에게도 낯설고, 독자는 오비와 함께 오수라는 단어의 뜻을 학습하며 성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오비는 결국 오수의 개념 및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와 맞설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그는 결국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게 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아체베가 사용한 이보 단어에는 매우 심오한 심리적 형이상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가 이처럼 이보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문체라기보다는 영어의 기존 표현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을 담아가 기존 영문 소설의 표현을 확장시켜나가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로즈(Rhoads)는 아체베의 문학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체베는 아프리카에 대해 글을 쓴 최초의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는 오래된 이미지를 제거해야만 했다.”

“Since Achebe is not the first to write of Africa, he must dispel old images in order to create a true sense of his people’s dignity.”[18]

이와 같은 면에서 오수라는 단어가 『더 이상 평안은 없다』에 등장할 때 이는 치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 가지는 기능과 유사하다. 즉, 두 단어 모두 영어에서 직역이 가능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오수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카스트제도일 수 있는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핏 인도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오수의 개념은 노예제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사회 특유의 모든 사회적, 형이상학적 특징을 반영한 신분제도로써 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체베는 그가 사용한 치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독자가 스스로 파악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전략은 ‘오수’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그 뜻을 직접적인 설명을 하기 보다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이 단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임으로써 독자들이 그 의미를 직접 추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평안은 없다』의 오수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있게 보아야 할 것은, 작가가 오수를 치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킴코는 비록 자신의 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는 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반면, 오비는 오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그 구체적인 의미의 영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 5. 이보 고유의 속담 및 민담 사용례

아체베는 이보어를 통해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족의 정서와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 고유의 속담을 영어로 번역하여 소설 속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속담은 모든 언어에서 구어의 일부를 이루는데 구전에서 유래된 수수께끼나 우화 등 다른 형태의 구비전승과도 관련이 있다. 특정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묘사로부터 형성되는 경우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사례에 대한 묘사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속담은 수년간 사람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

식의 바탕으로 한 줄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상, 믿음을 드러내고, 도덕성의 대한 태도, 사람들의 희망, 성취, 혹은 좌절도 내포될 수밖에 없다[19]. 이 때문에 소설 속에서 이보어의 독특한 속담을 소개하는 것은 이보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보사회에서는 회화, 대화, 가르침, 언변 다툼 등에 속담을 자주 사용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 도입부분에서 아체베는 이보사회에서 속담의 중요성을 풀이해주고 있다. “이보사람들은 대화의 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속담은 말과 함께 먹는 야자유다.” 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Among the Ibo the art of conversation is regarded very highly, and proverbs are the palm oil with which words are eaten.”[15]

아체베는 작품에 이보 부족의 속담을 인용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독자가 속담을 통해 이보부족만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속담에 나타난 부족의 문화적 특징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문화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독자들에게 각 인시킨다. 이처럼 아체베는 소설 속에서 속담을 사용함으로써, 서구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시도를 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유럽 작가의 작품들에서 왜곡되어 나타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바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20].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속담들은 작품의 의미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속담을 통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보다 생동감 있게 제시되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면밀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1]. 이 때문에 작가는 소설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속담을 사용하는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는 기도마저도 부족 고유의 속담으로 시작할 정도이다. 오비의 어머니의 친구인 메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속담을 지속적으로 나열했다.

아체베는 속담을 인용하여 부족 고유의 공동체 의식



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더 이상 평안을 없다』에서 오비가 재판을 받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줘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때 소설에서는 그를 도와야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주장이 속담을 통해 나타난다.

“...형제한테 아무리 화가나도 화는 살로 느껴야지, 뼈로 느끼면 안된다.”

“...anger against a brother was felt in the flesh, not in the bone.”[16]

“혈육한테는 아무리 화가나도 화를 살로 느껴야지 골수로 느끼면 안된다.”

Anger against a kinsman was felt in the flesh not in the marrow.”[16]

“만약 형제가 있으면 마음으로 그를 안아야 한다. 왜냐하면 혈육은 시장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He that has a brother must hold him to his heart. For a kinsman cannot be bought in the market.”[16]

우모피아 사회에서 특히 어른들은 젊은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속담을 많이 사용하곤 했다. 이 사회에서 어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때로 조상들로부터 마을을 대변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일임 받기 때문이다[21]. 『더 이상 평안은 없다』에서는 유학하고 돌아온 오비는 우무오피아 진보 연합회에 (Umuofia Progressive Union) 빗 청산을 4개월 뒤로 연장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외국 유학을 다녀오고 제일 많이 학식을 갖춘 오비에게 연합회 회장은 부탁을 수락한다고 하지만 라고스(Lagos)에는 젊은이에게 너무 유혹이 많은 곳이고 그것을 쫓다간 멸망하다고 얘기해준다.

“너는 굉장히 어리다, 어제 갓 태어난 아이처럼. 너는 책을 알 수 있지만 책은 책뿐이고 경험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You are very young, a child of yesterday. You

know book. But book stands by itself and experience stands by itself. So I am not afraid to talk to you.”[16]

또한 오비가 20 파운드 (pound)의 부정 뇌물 수수에 관련되어 법에 심판을 받게 되자 마을 어른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자기가 심지 않은 밭을 수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그래도 두꺼비를 먹어야 한다면 크고 즙이 많은 두꺼비를 먹어야 한다.”

“I am against people reaping where they have not sown. But we have a saying that if you want to eat a toad you should look for a fat and juicy one.”[16]

아체베는 속담을 사용하여 부족의 경험이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개별성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문화가 서구 문화와 다르며 서구 문화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보편성은 아프리카 문화가 여타 문화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류 공통의 경험적인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구세계의 아프리카 대륙과 수많은 부족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타파할 수 있었다.

“사람이 춤을 추면, 북이 그에 맞춰 연주되게 마련이다.”

“As a man danced, so the drums were beaten for him”[13]

“사람이 춤을 추면, 북이 그에 맞춰 연주되게 마련이다.”라는 속담은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이 자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언급하는 개념이다. 이 속담에서 춤추는 사람이 리더이고, 북을 치는 사람이 추종자인데, 북을 치는 사람은 춤추는 사람의 속도에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이 속담은 사람이 완전한 침묵 상태로 춤추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북을 치는 사람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뜻한다. 속담이 가진 언어적 특성은 매우 독특해서, 한번 독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이는 수 천

년간 전해져 온 인류의 지혜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고 아프리카 인들 역시 서구 세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매카시[22]는 이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아체베의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독자들은 매우 간단한 해설과 산문 양식에 충격을 받은 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아프리카의 언어적 특징을 강조하여 영어에 옷을 입힌 것으로서, 영어가 평상시에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측면을 드러내는 양식이라고 말한다.”

“When beginning Chinua Achebe’s novel Things Fall Apart, readers are often struck by the simple mode of narration and equally simple prose style, which critics have seen as Achebe’s desire to achieve ‘an English colored to reflect the African verbal style with stresses and emphases that would be eccentric and unexpected in British or American speech’”[22]

따라서 아체베가 내린 양식적 결정이 문화적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산문의 단순성을 통해 이 같은 특징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 소설을 서로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체베의 소설은 단순하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독특성과 보편성을 산문 양식에 조합시킨 것은 아체베의 속담이 가진 조합성과 상통한다. 독특성과 보편성 모두 그의 작품에 원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마치 고대부터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던 욕구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체베는 속담 뿐만 아니라 이보부족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민담도 자주 사용하였다. 민담이란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하며, 민간설화라고도 한다. 민중 사이에서 창작되고 전해진 서사문학을 뜻하면서 동시에 민중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진 서사문학이기도 하다. 민담을 통해 한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전승하는 것이다. 민담은 지역성과 시대성,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개성 등에 의해서 변주되며 전승

되지만, 그러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일관성도 유지된다 [23].

아체베의 소설에서도 이보부족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하늘과 매에 대한 민담으로 매가 대지를 대신하여 하늘과 대화를 나누고 비가 오도록 해 달라고 말한다.

“마침내 매가 하늘에게 가서 호소를 하게 되었고, 그는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로 하늘에게 호소했다.”

“At last Vulture was sent to plead with Sky, to soften his heart with a story of the suffering of the sons of men”[15]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아체베가 속담 및 민담을 사용함으로써 아프리카 문화 경험의 특이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 줄 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침략한 유럽인들이 보편적 인류 경험으로부터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는 듯하다. 아체베는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단 하나의 가능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아체베 작품 속의 속담과 민담 특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이들은 아프리카 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영적 경험을 한다는 증거이다.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누아 아체베의 소설이 아프리카 민속문학의 완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문 소설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나이지리아 언어인 이보어를 영어와 자연스럽게 교차사용하며, 영어의 기존 표현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독특한 정서를 포획하여 전달하였으며, 이는 그만의 소설 양식이 되어 영문 소설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더 이상 평안은 없다』 소설에서의 치누아 아체베가 Chi, Osu 등의 토착어를 사용한 사례, 나이지리아 본토의 민담을 사용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제로 그가 영문 소설의 외연을 어떻게 확장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도 아체베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의 다수 소설가들이 그가 취한 방식을 사용하여 영문 소설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정경, "아프리카 소설과 민속문학 :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에 나타난 속담, 민담, 민요,"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6권, pp.45-68, 2007.
- [2] 김상미, "혼성성과 양가성의 탈식민 저항전략: 치누아 아체베의 『무너져 내리다』," 영어권문화연구, 제2권, 제1호, pp.27-47, 2011.
- [3] Nyowe, Chinwe, "Igbo cultural and religious worldview: An insider'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Vol.3, No.9, pp.304-317, 2011.
- [4] 이두경, "콘라드의 제국주의적 무의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체베의 탈식민적 글쓰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36권, pp.3-30, 2014.
- [5] 이선현,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 대한 트랜스모던적 읽기,"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29-35, 2014.
- [6] 장태상, "절망에서 영광까지,"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제33권, pp.135-173, 2013.
- [7] M. S. Kwon, "Retrospect on the Study of African Literature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roblems of Language.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29, pp.297-313, 2011.
- [8] 박정경, "아프리카 영어 소설 문학의 태동,"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제21권, pp.79-121, 2007.
- [9] 박정경, "아프리카문학에 있어서 언어 선택의 문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2권, pp.53-73, 2005.
- [10] <https://www.villagevoice.com/2008/02/19/chinua-achebes-things-fall-apart-turns-50-this-year/>
- [11] Mode and Sani, "Varieties of English in Achebe's Things Fall Apart,"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2, No.5, pp.61-64, 2015.
- [12] Danladi, "Language Policy: Nigeria and the role of English language in the 21st century," European Scientific Journal, Vol.9, No.17, pp.1-21, 2013.
- [13] 정진농, 정해룡, "영문학이란 무엇인가," 새한영어영문학회, 제41권, pp.335-337, 1999.
- [14] 이석호, "아프리카의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본 탈경계 인문학 연구의 한 사례," 탈경계 인문학, 제2권, 제2호(제3집), pp.91-115, 2009.
- [15] C. Achebe, *Things Fall Apart*, Great Britain: Heinemann, 1986
- [16] C. Achebe, *No Longer at Ease*, Great Britain: Heinemann, 1987.
- [17] Dike, Victor, *The Osu Caste Discrimination in Igboland: Impact on Igbo Culture and Civilization*, New York: Universe, 2007.
- [18] Rhoads, Diana Akers, "Culture in Chinua Achebe's Things Fall Apart," African Studies Review, Vol.36, No.2, pp.61-72, 1997.
- [19] Kanu, Ikechukwu, "Igbo Proverbs as Embodiments of Igbo-African Philosoph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4, No.1, pp.164-168, 2014.
- [20] 조규형 옮김, *탈식민 논의와 미학의 목소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21] E. Edeh, *Towards an Igbo metaphysics*, America, Loyola, 1985.
- [22] B. Eugene McCarthy, "Rhythm and Narrative Method in Achebe's 'Things Fall Apart'," Duke University Press, Vol.18, No.4, pp.243-256, 1985.
- [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6762&cid=40942&categoryId=32876>

### 저 자 소 개

이 영 은(Young-Eun Lee)

정회원



- 2005년 12월 : Cornell University (인문학 학사)
- 2011년 6월 : Northwestern University(언론 정보학 석사)
- 2013년 8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콘텐츠응용, 사회과학콘텐츠